

## 다문화 뉴스 제작 관행과 게이트키퍼의 문화정치학

### Routinization of Producing Multicultural News and Cultural Politics of Gatekeeping

주재원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Jaewon Joo(jwjoo@deu.ac.kr)

#### 요약

본 연구는 스스로를 단일 민족 국가라고 여기는 한국 사회가 민족적 우월성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인종적으로 계층화된 질서를 재확인 하는 도구로서의 미디어 담론을 어떻게 생산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 세계적 공공 미디어 모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공영 방송은 계층, 나이, 인종, 성별, 이데올로기의 구분 없이 공공의 경험과 의견들을 불편부당하게 재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적 공영방송 KBS는 한국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적 집단들을 공정하게 재현 해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공영방송에서 재현되는 이주민들에 대한 뉴스 제작 과정에서 1차적 게이트키퍼로서의 취재기자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이주민들과 다문화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KBS의 일선 취재기자들은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정형화된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었고, 이주민들과 관련된 기사를 생산함에 있어서 KBS 내부의 취재 관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방송 콘텐츠 | 다문화사회 | 뉴스 제작 관행 | 저널리즘 가치 | 인터뷰 | 게이트키퍼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news making system of the prime time news of PSB in Korean society, where the presence of ethnic minorities is increasing rapidly. Although the World Wide Web has become one of the most attractive media over the last decade, Korean PSB, 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 still remains the most popular and influential medium. Therefore, the process of analyzing news making system of ethnic minorities in Korean society represented in Korean PSB as a social construction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n important key to understand the cultural and political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society. For this purpose, the article tries to understand news making process when producing news related to ethnic minorities in the Korean society such as migrant workers, married migrant women and mixed-heritag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by interview with ten reporters in KBS. As a result, most KBS reporters had stereotypes towards multiculturalism and migrants and news reports relating to ethnic minorities are usually produced routinely, using a set of rules that have become part of KBS culture.

■ keyword : Multicultural Society | Public Service Broadcasting | Migrants | News Making | Gatekeeping |

## 1. 문제제기

근대 이후 한국은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지배적 신화가 국가적 정체성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하지만 지난 수 년 사이에 이 지배적 신화는 대규모 노동 이민과 국제결혼으로 인해 흔들리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이주민과 다문화 관련 담론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 중 하나이다. 법무부 이주정책과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약 150만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다인종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 중 이주 노동자들이 약 70만여 명, 결혼이주여성인 약 55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파악이 되지 않는 미등록 외국인들도 약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1]. 통계청은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가 외국인 혹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다인종 사회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구 이동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의 유입은 근대 민족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사회의 문화적/정치적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된다[2]. 이 과정에서 사회적 권력을 가진 다수 세력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구성원들을 분류하고 차별하며 격하시킨다[3]. 이러한 권력 구조 속에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들인 이민자들은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며 결국 전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방향성과 정체성을 상실한 이방인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권력관계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중매체이다[4]. 한 사회에서의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은 그 사회의 주류 미디어에 의해 생산된 보편적 미디어 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5][6]. 이는 현대 사회에서 대중매체가 오픈이더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적 객체나 집단에 특정한 이미지를 투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4].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연구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민자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론

생산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지구적 이주의 흐름 속에서 국가적 우월성과 계층화된 인종 질서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로서의 공영 방송 뉴스를 상징하고, 1차적 게이트키퍼로서의 취재기자들의 다인종/다문화 현상에 대한 인식과 뉴스 제작환경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실재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주민들에 대한 담론 생산자들의 인식과 제작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 담론의 문화적/사회적 배경과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문헌연구

### 2.1 다문화사회로서의 한국과 이데올로기적 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

1990년대 이후 약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민이 혼재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장 두드러지는 이주 집단이다. 특히 노동 이민의 급격한 증가는 한국 사회의 인종적 다양성을 가속화시켰다. 한국은 아직 이주민 유입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빠른 속도로 노동력 수입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33].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대다수는 단순 육체노동자로 간주될 뿐 아니라 인종/계급적 서열화로 인해 이중으로 차별 받고 있다. 한국의 이주민들 중 또 다른 주류 집단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이다. 비교적 새로운 경향으로 간주되는 ‘다문화가정’은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처럼 노동력의 국제적 분업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34].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정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성별 분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인위적으로 장려되어 온 성격이 강하다. 즉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여성들을 이주시켜줌으로써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한 한국 여성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다[34].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얼마나 급격하게 다인종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동시에 향후 새로

운 형태의 다인종/다문화 문제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급격한 사회적 전환 과정에서 주류 이데올로기의 담론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대중매체이다[4].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은 전지구화 과정에서 미디어가 수행하는 역할에 집중해 왔으며, 미디어와 전지구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다[4][7].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전제는 전지구화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힘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것이다[3]. 이때 국가, 인종 차별적 사회 질서, 지역적 특이성을 중요한 가치로 환산하는 대중매체는 권력의 불균형에 의해 소외된 특정 사회, 인종,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을 형성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게 된다[8].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었던 것처럼 미디어 담론은 이주민들을 타자(others), 심지어는 범죄자나 잠재적 위험인물로 재현해 왔으며, 이렇게 재생산된 담론은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게 된다[9][32].

홀[6]은 특정 인종이나 민족 집단에 대한 정형화가 타자화의 실천행위라고 말한다. 즉, 미디어 담론을 통한 타자화는 집단의 차이를 드러내고 그러한 차이를 본질적이고 생물학적인 특성으로 환원하며, 지배 이데올로기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항대립적 요소들을 강조하여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 담론은 타자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민족주의를 확산시키려는 경향을 갖는다[10].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중매체는 전지구화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타당성을 유지하고 증폭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이 과정을 분석하면서 현대사회에서의 대중매체를 지배 계층을 위한 하나의 엘리트 담론 생산자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대중매체가 점차 증가하는 이민자들 특히 인종적 소수자들을 부정적으로 재현하여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인종적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7]. 부르디외[11]가 강조하듯 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은 국가적 사회 통념을 형성하고, 이와 유사하게 일상으로 통합되는 재현적 시스템으로서의 텔레비전 역시 사회적 계급 분류체계를 통해 흔히

민족적 정체성으로 지정된 것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와 ‘타자’에 대한 포용과 배제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포함된다. 특히 텔레비전의 재현에 있어서 ‘타자의 이미지를 가시화 것은 카메라의 사용에 의해 가능해졌고[12]’, 이 과정을 통해 텔레비전은 보다 쉽고 명확하게 타자로부터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은 한국의 미디어 연구들을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주민에 대한 미디어 연구는 대체로 텔레비전에 재현된 타자의 이미지와 그들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특히 다수의 연구자들은 텔레비전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의 분석을 통해 이주민들에 대한 특정 스테레오타입이 일상적,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13][14]. 일상적 미디어로서의 텔레비전은 재현 체계를 통해 특정 그룹을 타자화하고 동시에 ‘우리’로 규정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특별히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재현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는 공영방송에 적용할 시 더욱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인쇄 자본주의(print capitalism)’ 못지않게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서의 근대국가의 틀을 구축하고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 바로 영상매체이다. 영상매체와 근대 민족주의 간의 밀접한 관계는 근대 국가 초기에서부터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따라서 이 관계는 태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 1920년대 소비에트 영화들을 들 수 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모든 영화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그 결과 영화의 주제 역시 공산주의 혁명과 슬라브 민족주의를 예찬하는 내용으로 국한되었다.

국가가 주도한 영상매체의 또 다른 사례는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 태동한 공영방송이다. 공공 서비스로서의 초기 공영방송은 사회적 단결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는데, 특히 2차 대전 이후 실시간으로 중계된 국가 의식이나 행사 혹은

국가수장의 연설 등이 그러했다[15]. 무엇보다도 공영방송의 영향력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장르는 바로 뉴스였다. 특히 프라임타임에 방영되는 공영방송 뉴스는 유럽에서 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과 같은 지상파 중심의 방송 시스템을 가진 사회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정보의 출처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이 공론장의 중심에서 중요한 기반으로 기능하며, 중요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부르주아 공론장에 대한 하버마스의 설명은 공공미디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의 비판은 공영방송이 민주적 심의와 시민권에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커튼은 ‘공론장에 대한 하버마스의 설명이 역사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공영방송이 하버마스의 규범적 개념에 부합하는 것은 인정했다[16]. 그는 하버마스의 규범적 요소가 영국 공영방송의 기능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간헐은 공론장과 유사한 형태로서의 공영방송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17].

공영방송의 또 다른 역할을 설명하는 개념은 바로 ‘공공 가치론’이다. 1990년대 이후 공공가치론을 개척한 무어[18]는 공공서비스의 목표를 ‘공공 가치의 창출’에서 찾는다. 무어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는 개인의 선호가 아닌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염원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 서비스의 가치를 개개 이용자가 느낀 만족의 합으로 보는 공리주의나 후생경제학의 관점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공공 가치를 위한 공공미디어의 잠재적 역할을 파악하려는 폭넓은 연구의 전통은 ‘공영방송 뉴스가 민주주의 사회의 보편성에 기여하고 공적 정보의 원천으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전제로 이어진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는 곧 공영방송 뉴스가 특정 이슈를 보도함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주민들에 대한 사안이 대중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대중매체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문제는 분명 긴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은 문화적 다양성과 공정성을 추구하고야 할 책임이 있는 미디어인만큼 더욱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 2.2 방송 뉴스 생산 과정의 게이트키피

본 연구의 핵심 전제는 ‘텔레비전이 사회적 이슈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회가 지시 받는 규범과 가치들을 구성하고 유지한다’는 것이다[19]. 전지구화 시대에 인구 유동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의 민족 정체성은 점점 다양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방송매체는 재현의 시스템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참고자료로서 더욱 중요해진다[4]. 따라서 텔레비전 뉴스 제작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은 텔레비전의 담론을 통해 나타난 인종적 혹은 사회적 타자성의 재생산 구조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대중적인 미디어로 자리 잡기는 했지만 텔레비전은 ‘일상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미디어로 간주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중요한 의미작용의 과정이 포함된다. 텔레비전이 사회를 재현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재현이란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한 의미를 생산하기 위한 언어와 이미지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재현에 대한 논의는 현실의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로서의 ‘현실’과 미디어에 의해 재현되는 ‘현실’간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12].

수많은 텔레비전 장르들 중에서도 뉴스는 텔레비전이 가지는 핵심적인 정보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보여준다. 텔레비전 뉴스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대중적인 정보의 원천이며 그러므로 보편적 대중이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텔레비전 뉴스의 기능에 대해 건틀릿과 힐[20]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수단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텔레비전 뉴스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이 대중의 지식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클래스고 미디어 연구소는 텔레비전 뉴스를 본질적으로 ‘전문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믿음의 일관된 집합에 기초하며 엄격한 재현의 공식으로 표현된 생산물’로 보았다[21]. 홀이 주장하듯, 객관성에 대한 저널리스트의 신념(사회적 통념이 뉴스제작 시스템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사실과 가치의 완벽한 구분)은 그 자체로서 허구에 불과할 수도 있다[6]. 뉴스는 현실 세계의 재현이며 모든 재현은 선택적이다[5]. 텔레비전 뉴스가 재현이라는 방식을 통해 신화화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뉴스 소재를 취사선택하고 가공하는 일련의 재생산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러한 뉴스 선정 과정은 게이트키퍼(gatekeeping)이라고 불리며 이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뉴스 제작자라고 부른다. 게이트키퍼는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메시지들이 특정 시기, 특정 수용자들에게 도달하는 단 몇 개의 메시지로 취사선택 및 가공되는 과정을 일컫는다[22]. 좀 더 미시적인 분석에 의하면 게이트키퍼는 어떤 사건에 대한 필수 골격을 재구축하고 그것을 뉴스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22]. 텔레비전에 방송되는 뉴스 콘텐츠들은 뉴스 제작자들의 의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며, 이는 곧 뉴스가 제작자의 의식 혹은 무의식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버[23]는 기자와 뉴스 취재원의 상호 관계 연구에서 뉴스 취재 과정 및 보도 과정에서 취재 기자를 1차적인 게이트 키퍼(gatekeeper)라고 정의한다. 취재 기자가 어떻게 뉴스 가치를 판단하고 취재에 임하느냐에 따라 뉴스 중요도가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후 2, 3차적인 게이트 키퍼에 의해 기사 선택 기준이 달라진다. 기버는 게이트 키퍼 과정에서 '지면에 게재할 수 있는 뉴스 품목 수의 많고 적음, 각 뉴스들의 중요성, 마감 시간에 대한 압박, 기술적인 제작' 등의 요소에 비하면 개인적인 주관은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기버는 게이트 키퍼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 및 그 조직의 관행적인 업무 요소들이 일선 취재 기자의 개인적인 기사 선택 기준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기버의 관점은 미디어의 개인 종사자들이 게이트키퍼로서 집단행동을 한다고 간주하여 미디어 조직을 게이트키퍼의 단일체로 보았다.

그러나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을 가진 기자들이 모여 기능하는 언론 조직에서 구성원간의 개인적 특성이 결여된 조직이란 존재할 수 없다. 바스[24]의 모델에 의하면 게이트키퍼는 두 단계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1 단계는 다양한 채널로부터 수집되는 정보 (raw

news)를 받아서 이를 뉴스 원고화하는 뉴스수집 단계를 말하고, 2 단계는 뉴스 가공자가 뉴스원고를 수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완성된 작품으로 처리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방송 중심이 아닌 신문 중심의 연구이기 때문에 방송뉴스가 갖는 속성을 설명하는 데는 이 모델에 따르면 모든 게이트키퍼들이 반드시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내부뉴스 유통 과정은 뉴스 수집자와 뉴스 가공자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 결과 방송뉴스의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그 결정 행위는 1차적 게이트키퍼 차원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선 취재기자들의 능동적인 개인적 차원에서의 게이트키퍼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게이트키퍼 차원을 개인적 단위로 설정하였다고 해서 게이트키퍼가 소속된 조직과 독립적이거나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레빈의 게이트키퍼 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한 개인의 특성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장(field)의 맥락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즉, 조직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외적 세계를 의식하는 것은 일차 게이트키퍼로서의 취재기자가 뉴스가치나 방향성을 결정하더라도 그것은 조직의 방침이나 관행을 반영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이트키퍼는 분명히 개인적 단계, 업무적 관례의 단계, 조직적 단계 등의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22]. 하지만 정치적/경제적 권력 혹은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합의, 감정, 이데올로기가 어떤 방식으로 뉴스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작업임을 감안한다면 일선 취재기자들의 개인적 가치 판단 개입 여부와 취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업무적 관행 등을 분석함으로써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 공영방송인 KBS<sup>1)</sup>의 뉴스

담당 기자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이주민과 다문화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텔레비전 뉴스 제작자에 대한 연구는 담론 분석적 미디어 연구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8]. 피스크[25]는 담론을 ‘어떤 주제 영역에 대하여 하나의 일관된 의미의 집합체를 만들고 순환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발전한 재현의 체계’라고 정의했고, 페어클라우[9]는 담론을 세계(물질세계의 과정, 관계, 구조 혹은 사상, 감정, 믿음과 같은 정신세계, 사회적 세계)의 측면을 재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자들과의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통해 권력의 재현 도구로서의 대중매체가 ‘우리’와 ‘타자’를 구별하기 위해 선택, 편집, 제작의 과정에서 어떻게 특정한 담론을 확대 재생산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인터뷰 질문은 큰 틀에서 기자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짓기 보다는 상호 관련이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순서와 영역 구분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보다 풍성한 이야기들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sup>2)</sup>.

제시된 인터뷰 자료는 정보 수집을 위해 통제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화와는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뷰 대상자가 어떤 상황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제공하도록 전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상자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제시될 인터뷰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기대에 근거한다. 따라서 인터뷰 자료들은 생동감이 있고, 다들

어지지 않았으며 분석함에 있어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 [26]. 결과적으로 뉴스 제작자들과의 인터뷰는 실제로 뉴스를 제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산된 재현의 의도와 해석을 탐구하게 해 주었다. 인터뷰는 그들의 견해와 미디어 제작 과정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제약들과 지침들을 기록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미디어에서 소수집단 재현에 대한 공공 정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디어 제작자들과의 인터뷰는 뉴스 편집실의 정치적 가치관을 파악하고 이민자들과 민족적 소수자들의 재현에 대한 지침/제약들을 분석하는데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인터뷰는 10명의 뉴스 담당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최초 25명의 KBS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하였고, 그 중 12명이 인터뷰에 동의했으나 지역, 성별, 기자 경력, 의사 결정권의 다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0명의 인터뷰 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최종 표본에는 6명의 여성과 4명의 남성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4명은 서울 KBS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6명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이주민 혹은 다문화 관련 뉴스를 최소 2회 이상 보도한 경험이 있었다. 각각 대상자들의 근무기간은 4년에서 16년 사이로 매우 다양했으며, 7명은 보도 기자, 나머지 3명은 직접 뉴스 제작에 관여하는 제작 기자였다. 각 인터뷰 세션은 최소 50분, 최대 7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위해 인터뷰 대상자들의 허락 하에 디지털 녹음기가 사용되었고, 모든 인터뷰는 총 138페이지의 녹취록으로 기록되었다.

- 1) 2014년 현재 KBS와 MBC는 모두 공영방송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분석의 엄밀성을 위해 공공가치 실현 정도, 수신료 운영 여부, 사회 보편적 인식 등을 놓고 고려했을 때,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KBS를 대표적 공영방송으로 상정하였다.
- 2) 반구조화된 인터뷰의 특성상 큰 틀에서의 질문을 카테고리별로 설정해 상황에 맞게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은 다문화와 인종적 소수자들에 대한 기자 개인의 생각과 취재 경험, 그리고 취재 이후 뉴스 제작 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후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가지는 조직적 차원에서의 특성과 다문화 관련 뉴스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경험, 그리고 보다 확장하여 이를 사회적 인식과 어떻게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등을 간접적으로 질의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KBS에서 보도했던 다문화 관련 뉴스들을 직접 보여주고 특정 프레임이나 담론적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인터뷰하였다.

표 1. 인터뷰 참여자

이름 (영문 이니셜)	성별	근무지	경력
A	여	진주 KBS	4년
B	남	순천 KBS	4년
C	남	광주 KBS	13년
D	여	울산 KBS	7년
E	여	서울 KBS	7년
F	남	서울 KBS	16년
G	여	춘천 KBS	7년
H	여	서울 KBS	14년
I	남	부산 KBS	5년
J	여	서울 KBS	9년

## 4. 연구 결과 및 분석

### 4.1 이주민 관련 뉴스의 정형화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했던 KBS 기자들은 이주민 관련 뉴스들이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중 하나는 이주민들이 한국의 명절 기간에 등장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그들이 처한 열악한 삶의 환경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전자의 경우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동일한 내용의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자들은 이러한 뉴스들을 ‘달력 뉴스’라고 불렀다.

아무래도 명절이나, 예..특별히 이제 계기가 있을 때 이제 다문화 가정 취재를 했던거 같구요, 아니면 이제 뭐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 그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보통 명절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뭐 그 정도에 맞춰서 취재를 하는 거 같은데요. (B 기자)

우리가 이주 노동자를 부각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명절의 스케치로 윈 오브 템으로 들어가는 거... 명절에 그들도 (웃음) 우리와 하나로 어울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꼭지(달력 뉴스) 우리도 추석 좋아요 (네네)그런거 하나를 만든다든지 ‘외국인 노동자도 즐겁습니다’라고 해서 한 단락으로 들어간단던지... (E 기자)

이런 뉴스들에 등장하는 외국인들은 주로 명절 행사에 초대된 이주노동자들이거나 가족들을 위해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결혼이주여성들 (KBS 기자들은 이들을 보통 ‘외국인 며느리<sup>3)</sup>’라고 표현한다)이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지난 십 수년동안 동일한 맥락에서 취재되어왔으며, 뉴스 속 그들은 한국 명절을 즐기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었다. 그러한 뉴스가 한국의 명절 분위기에 들어맞기 때문이라고

KBS 기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뉴스는 왜 매년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인가?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것이 ‘관행’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관행은 그 성과에 있어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그들이 이것을 관행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이런 종류의 뉴스 선택이 KBS의 제작 환경에 깊게 뿌리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텔레비전 뉴스는 제작 기술(주로 이동성)의 제약성과 소위 ‘그림’이라고 불리는 자료화면에 대한 제한성 때문에 계획되고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일종의 관행이죠. 좋게 이야기 하면 아까 처음에 말한 그런 거고, 관행의 일종이라고 봐야죠... 우리만족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양성을 지향한다는 우리만족인 것 같아요. (D 기자)

관례지. 관례. 설 명절인데 우리나라 사람만 나오면 재미가 없고, 같이 외국 사람들도 와서 좀 우리나라 명절이니까 좀 같이 즐기는 명절이면 더 좋겠다. 이왕 한국 사람을 2명 인터뷰를 할 거면, 저기 외국아이들이 투호라도 던지고 있으면 신기하니까. 뭐 재미있다는 한마디 끌어내려고 인터뷰할거고, 뭐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I 기자)

이러한 뉴스 제작 관행의 정형화는 뉴스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며[21], 뉴스에 대한 가치 판단과 제작의 임무를 단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을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6]. KBS 기자들에 따르면 뉴스에 등장하는 한국 사회의 이주민들은 명절에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전통 놀이를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그들 개인적 차원의 발상이라기보다는 이미 구조적 환경에서 내면화된 제작 관행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KBS 기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뉴스에 한국 시청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축제를 즐기는 ‘타자’들에 대한 보도는 한국 시청자들의 나르시시즘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제시되는 ‘작은 차이의 나르시시즘(The narcissism of minor differences)’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즐긴다’는 사실로부터 얻어내는 나르시시즘

3) ‘외국인 며느리’라는 표현은 방송뉴스 및 타 언론매체에서도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는 여전히 가부장적 전통의 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결혼이주여성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공영방송에서조차 결혼이주여성들을 ‘외국인 며느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타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재생산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은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전제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다[7].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는 ‘그들’의 것보다 우월한 권력을 가지게 되며, ‘우리’의 문화는 권력의 도구(means of power)로 작용한다[27]. 즉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한국 음식 맛있어요’, ‘한국 전통놀이 훌륭해요’ 등과 같은 정형화된 인터뷰를 얻어내기 위한 관행적 뉴스 생산은 표면적으로 이주민들을 다루는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타자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명절을 우월하게 재현하는 권력 메커니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KBS 기자들이 다루었던 이주민 관련 뉴스의 또 다른 주제는 ‘이주민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런 종류의 뉴스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회적으로 보도될 뿐만 아니라 계획된 뉴스처럼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사건에 대한 표면적이고 단순화된 설명은 사실에 대한 곡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뉴스를 취재했던 기자들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느꼈으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뉴스를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원이 제공하는 일부 사실에 편향된 기자의 감정은 뉴스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일한 사회적 현상이 기자의 의도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 필리핀 엄마가 이제 아빠랑 이혼을 하고, 아이가 그 때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인데 얼굴이 까만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반에서 왕따고, 물론 이제 그 엄마가 혼자서 벌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되게 도와주고 싶어서 그 때 아마 충남 공주, 공주시청에 그 무슨 복지과 직원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한번 보내준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F 기자)

불쌍하죠. 남의 나라 와서 고생하는데, 사람 대접 못 받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도와주고는 싶은... 뭐 그런 마음이 들죠. (G 기자)

이러한 텔레비전 뉴스는 종종 어두운 시각 이미지, 서정적인 배경음악 효과와 결합하여 시청자들의 감성

을 자극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은 사회구조적 제약이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개인이 당면하고 극복해야 할 슬픈 이야기로 변환된다. 기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간혹 전혀 새로운 사회적 현실을 구축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가트[28]는 뉴스를 하나의 드라마 장르로 분석했는데, 연속되는 사건의 전개와 후속 보도들 그리고 기자의 감정적 개입과 편집 기법에 의해 뉴스는 하나의 드라마적 서사구조를 가진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KBS 기자들의 연민은 뉴스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주민들에 대한 특정한 담론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 4.2 내재화된 인종적 편견과 언어 권력

KBS 기자들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종적 편견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재화시키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의외로 어렵지 않았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인종적 편견을 당당하게 언급하는 기자들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우선 그들은 뉴스를 취재함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적 인식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백인과 유색인종을 취재함에 있어서도 이중적 태도를 나타냈다. 심지어 그들 중 상당수는 백인을 취재할 때 뉴스가 더욱 생생하고 역동적이며 고급스러워 진다고 주장했다.

한국 날씨가 예를 들어 너무 춥다 그런거를 이제 백인, 지나가는 백인한테 따면 어쨌든 인터뷰를 따면 인터뷰 하나가 사는 생생한 인터뷰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넣는 경우도 있죠. ...백인의 시각에서 보는 것들은 좀 넣으면은 좀 리포트가 살아나는 그런게 있거든요. (E 기자)

저라도 백인 (인터뷰) 딸거 같아요. 현장에서 보고 좀 지적일거 같은 백인을 저라도 선택할 거 같아요. 그냥 아무래도 세련됐다는 그런 의식? 친절하다? ...아무래도 뉴스가 좀 질이 높아질 것 같더라든지 그런 생각을 할 거 같아요. 고급스러워질 거 같더라든지 그런 생각할 거 같아요. (H 기자)



일단 백인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왔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저도 모르게 선입견이 잡혀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현상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의견 자체를 물어보는 식으로 되지만, 그리고 인터뷰 하는 주제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백인들을 인터뷰 할 때와 이주노동자 그니깐 유색인종과 인터뷰할 때는 이제 처음에 제가 질문하는 의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나 이렇게 한국에서 억압받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 인터뷰할 때는 그들의 어려운 점을 더 듣고 싶어 하고, 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죠. (J 기자)

KBS 기자들의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은 취재 대상자의 인종적 배경에 따라 던지는 질문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인터뷰 대상의 인종적 배경에 따라 뉴스 아이템을 취사선택하려는 뉴스 제작 관행의 일부이기도 하다. 기자들은 그들이 듣고자 하는 의견이 무엇이나에 따라 취재 대상의 인종을 결정한다. 만약 그들이 한국의 문화와 같이 일상적이고 가벼운 주제를 다루고 싶거나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자 한다면 백인들을 인터뷰한다. 반대로 한국에서의 힘겨운 삶을 보여주거나 심각하고 논란이 되는 사회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유색인을 택했다. 제기된 질문들에는 애초에 리포터가 기대했던 답이 주어지도록 연출되었는데, 이 방법은 방송 뉴스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백인과 유색인들에 대한 KBS 기자들의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다. 이러한 인종적 가치관이 일반적인 한국 공영방송 뉴스의 보도 경향에 반영되는 것이다.

KBS 기자들의 백인 선호 경향은 뉴스 선호도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그러한 뉴스 텍스트는 또 다른 인종적 편견을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KBS 기자들의 내재화된 인종적 편견은 인터뷰 언어를 선택하는 행위에서도 알 수 있다. 백인의 경우 인터뷰 대상자는 대부분 관광객이나 전문가들로 간주되고, 그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주로 영어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반면 백인이 아닌 사람들, 특히 이주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백인과 유색인에 대한 리포터들의 편향된 관점이 뉴스 인터뷰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 사람들(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우리한테 동화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첫째는 그렇고, 둘째, 외국인 관광객들은 우리나라 말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저변에 깔고 있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했으니깐, 우리나라 말을 일정은 하겠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요... (A 기자)

외국인 신부들이 한국말을 떠듬떠듬 하더라도 하는 모습 자체가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죠. '아 한국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구나. 아 한국인이 되려고 저렇게까지 노력하는구나. (H 기자)

인터뷰를 요약하자면, KBS 기자들은 백인들에 대한 두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한국에 거주하는 백인들을 이주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는 모든 백인들은 영어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주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들로 여겨지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간주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2009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행이 아닌 체류를 목적으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중 미국인들이 중국인들 다음으로 가장 많았으며, 백인 중심 사회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러시아 출신의 이주민들을 모두 포함하면 대략 17만여 명에 달했다[29].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팽창한 영어 교육 시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그들 중 상당수가 사설 교육 기관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백인들을 이주민이 아닌 관광객이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의 인식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그들의 인터뷰 접근 방식은 인종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 선입견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언어는 사회적 권력관계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푸코에 의하면 언어권력은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30]. 역사적으로 특정 외국어 구사능력은 당대의 정치/경제 권력과 직결되는 요소로 간주되었다. 언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 정보가 다른 언어로 형성되어 있다면,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정보력 획득의 기회로 치환되는 것이며 여기서 언어권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에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식민통치에 일조하며 기생할 수 있었던 과거도, 토익 점수가 높은 사람이 취직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는 현재도, 언어권력은 변함없이 우리 삶에 생생하게 구현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영어라는 언어는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또 재생산한다. 기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native speaker’란 결국 ‘백인’을 의미한다. 필리핀이나 인도 그리고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곳 출신들은 ‘native speaker’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언어권력적 질서는 영어-한국어-기타 외국어 순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질서에 따라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들을 제외하고는 차상위 언어인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강요되는 것이다.

차별화된 인터뷰 언어 관행이 가지는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뉴스 보도가 생산해낸 이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전형성(stereotype)이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은 그들의 한국어 발음 때문에 유머의 소재로 활용되었으며, 공공연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공공연하게 그들의 말투는 농담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으며 간혹 순전히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반면 이주민들에 대한 동정심을 유도하는 사연들이 뉴스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뉴스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어눌한 한국어 발음이 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한국인들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요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재현 관행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 전반으로부터 소외되고 게토(ghetto)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4.3 뉴스 제작 관행의 현실과 한계

KBS 기자들은 시간의 제약, 투자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 그리고 회사가 부여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뉴스 보도의 양적인 제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 그들은 왜 뉴스 보도에 있어서의 제한적 틀에 순응하고 스스로를 프레임에 가두는가? 인터뷰 결과 이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보도 범위가 제한된 것일 수 있다. 한국에서 이주민들의 급증이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였다. 보도 기사가 거의 동일한 주제를 다루며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생산한다는 사실은 뉴스 소재의 다양성이 부족하거나 기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적 현상을 다루어야 하는 낮은 현실 때문일 것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의 경우 주간(weekly), 월간(monthly)으로 다루어지는 뉴스가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중 하나는 생소한 사회 현상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뉴스 생산 관행에 맞추어 보도되는 뉴스 생산의 ‘관례화(routinization)’이다.

이러한 뉴스 제작 관례화의 원인은 심층보도보다는 사건/사고에 대한 특종이나 단독 보도에 무게중심을 두는 보도국의 분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BS 기자들은 당일 발생한 사건, 사고들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보도에 익숙해져 있다. 그들은 종종 당일 일어난 사건을 몇 분 내에 보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러한 업무 여건에서는 기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심층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다. 빠른 속도로 일해야 하는 업무 환경은 생소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피상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인터뷰에 참여했던 KBS 기자들 대다수는 다문화 사회 혹은 이주민들에 관한 뉴스를 여전히 일회성 뉴스 소재로 취급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관련 뉴스를 매일 새로 제공하는 데에 그들의 시간과 노력 대부분을 쏟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민들에 관한 뉴스는 정치 뉴스가 적은 공휴일이나 명절 그리고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생산될 수 밖에 없으며,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민들은 오락의 대상 혹은 사건에 연루된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이 점차 고착화된다.

아직까지는 지금 초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로 뭐 아랍인들이 많이 그래서 막 이슈가 된 것도 아니고, 초기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뉴스밖에 나올 수 밖에 없는거 같고... 별로 소스가 없다는 거죠. (F 기자)

기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 매일 아이템을 내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늘 새롭고 생소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그게 관행적으로, 뭐 가는 측면도 강해요. 뭐, 아이디어가 없으면, 데스크에서 “이것 좀 해봐라.”하는 데, 그 사람 머릿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게 아니고, 옛날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골라서 주는 거죠. (C 기자)

방송기자들 다 그렇습니다. 계기가 있을 때만 이제 꼬집어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뻘한 뉴스. 잘 적응해서 잘 살고 있다. 뭐 명절 때 뭐 떡..전도 부치고 요리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보여주고 뭐 사건 일어날 때 한번씩 나타나고. 뭐 이 정도에 그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B 기자)

KBS 기자들 스스로가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들은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 있어서 한국 사회의 상위 계층에 속하는데, 이런 그들이 이주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혼혈 아동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자들에 대해 그들이 가진 거리감은 시청자로 하여금 공감대를 얻기 힘든 틀에 박힌 뉴스와 고정관념을 생산해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뉴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건이 제작관행을 형성하고 이는 내부 제작들의 개인적 신념과 얽히면서 구조화된 틀을 공고하게 구축한다. KBS가 이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경우, 이주자들에 대한 특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시청자들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자들은 우려한다. 이것이 외국인에 대한 보도 기사가 일반적인 대중들의 관점과 합치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KBS 기자들 자체가 이미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조금

만 방심하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려는 그런 끈을 놓치기가 쉬워요. 관심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 모르니까 안 보이는거죠. (J 기자)

이주 노동자들의 실상이 이렇다 이런 보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성질 급하신 분들은 전화를 해요. 우리나라 실업자가 열만데, 재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 다 뺏어 갔는데, 왜 재대들 편을 드냐구 KBS 너네 국민의 방송이지 왜 그러냐구, 너네가 그러면 안된다구 바로 전화가 와요. (H 기자)

하지만 더욱 핵심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기자들을 비롯한 KBS 조직 구성원들이 이주민 들과 관련된 이슈를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서울 KBS 기자들은 이주민들에게 더 적은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역 방송국 기자들보다 이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더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차별이 발생하는 또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 이주민들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KBS 기자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외국인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뉴스 보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들을 지역화된 관점(localized view), 더 나아가 내부 오리엔탈리즘(internalized orientalism) 관점으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31].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그런 차별이나 그런 거는 KBS라기 보다는 한국사회에 있는 정도의 선입견이 우리조직에도 물론 있기 때문에, 뉴스가 치를 따지는데 있어서 작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D 기자)

만약에 그들(이주민들)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을 한다면 당연히 그게 편성규약에 다문화 사회 내지는 이주 노동자 내지는 외국에서 들어온 나중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그런 사람들 관련된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그게 명문화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기자들 또는 KBS 내에서도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우리 사회 혹은 한국인

에 한 축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J 기자)

마지막에 언급된 두 가지 요소는 순환 논증의 한 예이다. 인터뷰 결과 KBS 기자들은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관심과 편견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와 조직의 분위기는 기자들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에 관한 일회성 뉴스를 생산하게끔 유도한다. 그리고 보편적인 뉴스 시청자들은 외국인들의 재현된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강화하여 확고한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이러한 지식들이 축적되어 한국 사회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담론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담론이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데에는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에 대한 축적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작용한다.

##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내 이주민들에 대한 보도를 담당하는 공영방송 뉴스 기자들의 인식이 뉴스에 어떻게 반영되며 뉴스 제작 과정에서의 관례화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자들 개인적 차원의 인식과 관례화된 뉴스제작 문화가 일정한 형태로 재생산되는 이주민 관련 뉴스 콘텐츠 생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KBS 기자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에 대해 정형화된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인식은 이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기자들은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들에 대해 막연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뉴스 취재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이 가난한 환경과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백인과 그 외 이주민들에 대한 기자들의 태도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KBS 기자들은 백인들을 주로 문화적 이슈나 한국적 가치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객관화된 타자로 인식하는 반면 유색 이주민들은 주로 한국에서의 열악한 생활과 삶의 어려움 그리고 한국 문화를 포장하기

위한 부수적 배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인터뷰는 서로 다른 언어(한국어와 영어)로 수행되며, 다른 종류의 질문(개방형과 폐쇄형)들이 특정 답변을 얻기 위하여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기자들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관례적 행위로 볼 수 있다.

둘째, KBS 기자들은 외국인들과 관련된 기사를 생산함에 있어서 KBS 내부의 취재 관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절 행사에 참여한 이주민들에 대한 뉴스나 다문화가정의 열악한 생활 실태에 대한 뉴스 등을 다룬 경험이 있는 기자들의 인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적 뉴스의 특징은 일정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는 점인데, 이러한 뉴스 담론의 반복적 생산은 타자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공고하게 구축하며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KBS의 관행적 뉴스제작 차원에서 특정 이슈와 관련된 이주민들이 높은 뉴스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들에 관한 뉴스 보도는 여전히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공공성과 불편부당성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자 개인의 일상적 뉴스감 찾기와 관례화된 시스템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주민들에 대한 뉴스 보도의 공적 가치나 공영방송 기자로서의 의무 등과 같은 기자들의 인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KBS 기자들 중 상당수는 이주민들에 대한 뉴스 내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연민적’ 혹은 ‘긍정적’인 보도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만큼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다. 그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존중 받아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이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자들의 관점과는 달리 KBS 뉴스가 바라보는 이주민들은 여전히 계급적, 민족주의적 지배담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관례적으로 구축된 이주민 관련 보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자 개인적 차원의 문제임과 동시에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사

회의 보편적 구성원들이 가진 인종적 편견과 자민족 중심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영방송 KBS의 시스템적 한계를 반증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에서의 미디어 산업은 디지털, 다채널 시대를 맞아 급격히 재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성과 경쟁력을 이유로 공영방송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미디어 규제기구 Ofcom이 밝힌 바처럼 미디어의 다양성은 다채널 환경과 무관하며 오히려 지역, 언어, 인종, 성별을 넘나드는 문화적 다양성과 연계되어야 한다[35].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게이트키퍼들의 자율적 의지가 아닌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천의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미디어가 바로 공영방송이어야 한다. 공영방송 KBS 역시 추상적이고 왜곡된 다문화 담론 생산을 지양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디 본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과 언론인들에게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다인종, 다문화주의를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공영방송의 역할 정립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공론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1] 삼성경제연구소, “다문화정책: 동화에서 융화로”, CEO Information, 제853호, 2012.
- [2] R. Robertson,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Sage, 1992.
- [3] D. Held, A. McGrew, D. Goldblatt, and J. Perraton, *Global Transformations*, Polity Press, 1999.
- [4] J. Curran, *Media and Power*, Routledge, 2002.
- [5] J. Downing and C. Husband, *Representing 'Race'*, Sage, 2005.
- [6] S. Hall, "The Work of Representation," In S. Hall (ed.) *Representation: Culture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Sage, pp.13-64, 1997.
- [7] A. Appadurai, *Fear of Small Numbers*, Duke University Press, 2006.
- [8] T. van Dijk, "Discourse and the Denial of Racism," *Discourse and Society*, Vol.3, pp.87-118, 1992.
- [9] N. Fairclough, *Discourse and Social Change*, Polity Press, 1992.
- [10] R. Wodak, R. Cillia, M. Reisigl, and K. Liebhart,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y*,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9.
- [11] P. Bourdieu,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12] M. Sturken and L. Cartwright, *Practices of Looking: An Introduction to Visual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13] 이동후, “텔레비전이 재현하는 아시아”, 방송문화연구, 제18권, 제1호, pp.9-35, 2006.
- [14] 김명혜, “한국 텔레비전의 글로벌 로컬리티 재현”, 언론과학연구, 제12권, 제2호, pp.113-144, 2012.
- [15] P. Scannell, “Public Service Broadcasting: The History of a Concept,” In T. Miller (ed.) *Television: Critical Concepts in Media and Cultural Studies*, Routledge, 1989.
- [16] J. Curran, “Rethinking the Media as a Public Sphere,” In P. Dahlgren and C. Sparks (eds.) *Communication and Citizenship*, Routledge, pp.27-57, 1991.
- [17] N. Garnham, “Media and the Public Sphere,” In P. Golding, G. Murdoch and P. Schlesinger (eds.) *Communicating Politics*, Leicester University Press, pp.37-53, 1986.
- [18] M. Moore, *Creating public value: Strategic management in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19] J. D'acci, "Television, Representation and Gender," In R. Allen and A. Hill (eds.) *The Television Studies Reader*, Routledge, pp.373-388, 2004.

[20] D. Gauntlett and A. Hill, *TV Living*, Routledge, 1999.

[21] Glasgow Media Group, *More bad news*, Routledge, 1980.

[22] P. Shoemaker and P. Vos, *Gatekeeping Theory*, Routledge, 2009.

[23] W. Gieber, Across the Deask: A Study of 16 Telegraph Editors, *Journalism Quarterly*, Fall, 1956.

[24] A. Bass, "Refining the "gatekeeper" concept: A UN radio case study," *Journalism Quarterly*, Vol.46, pp.69-72, 1969.

[25] J. Fiske and J. Hartley, *Reading Television*, Methuen, 1978.

[26] N. Denzin and Y. Lincoln, *Collecting and Interpreting Qualitative Materials*, Sage, 2003.

[27] E. Hobsbawm, "Mass Producing Tradition: Europe, 1870-1914," In E. Hobsbawm (ed.)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28] L. Bogart, "Television news as entertainment," In P. H. Tannenbaum (ed.) *The Entertainment functions of television*, Lawrence Erlbaum, pp.209-249, 1980.

[29] 통계청, *체류외국인통계*, 2009.

[30] M. Foucault,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Pantheon Books, 1980.

[31] 임영호, "텔레비전 오락물에 나타난 내부 오리엔탈리즘과 지역 정체성 구성: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의 텍스트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46권, 제2호, pp.576-605, 2002.

[32] 주재원, "Representation of Others in TV Contents: Focusing on the KBS News 9",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8호, pp.40-49, 2014.

[33]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34] 한건수,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비교문화연구*, 제9권, 제2호, pp.157-193, 2004.

[35] S. Barnett, *Journalism, Democracy and the Public interest: rethinking media pluralism for the Digital Age*,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저 자 소 개

#### 주 재 원(Jaewon Joo)

#### 정희원



- 2006년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
- 2012년 : 런던정경대학교 (LSE) 언론학 박사
- 2014년 ~ 현재 :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미디어 정책, 미디어 담론, 전지구화, 민족주의, 다문화사회